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소고

김 성 기*

.....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었을 때 최초의 발행가액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분리형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두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동일하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시가와 신주인수권 시가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하여 그 차액으로 신주인수권을 평가한다. 즉, 「기업회계기준서」는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할 때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이용하면 분리형으로 분류하고 증분법을 이용하면 비분리형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용정보에 따른 분류이지 개념의 차이에 바탕을 둔 분류가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고 만기 상환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업이 청산되는 시점까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존속한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중도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기업이 청산되는 시점까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존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옳바르지 못하다.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화폐액으로 측정할 것을 신주인수권대가라 하면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신주인수권대가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중도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대가 계정잔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I. 서 론

신주인수권은 일반적으로 사채나 우선주에 부가되어 발행되는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여된 사채를 말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는 비분리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신주인수권 시장이 형성되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거래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최초의 발행가액을 사채와 신주인수권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즉, 신주인수권과 사채에 대한 평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발행가액을 사채의 시가와 신주인수권의 시가와와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견해이며, 둘째는 발행가액 전액을 사채에 배분하고 신주인수권에는 전혀 배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첫째 견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채의 시장가격은 발행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자액에 따라 결정되며, 신주인수권의 시장가격은 발행회사 보통주의 시장가격, 즉 발행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사채의 시장가격과 신주인수권의 시장가격이 서로 다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다. 또한 여러 가지 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나, 장기리스의 자본화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구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하나의 거래에서 생겨난 가격을 각 구성항목에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적정가치를 배분하지 않으면 이는 증권의 법률적 형태만을 중시하고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반해 발행가액을 신주인수권에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두 번째 견해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채와 병행하여 신주인수권이 발행될 때 각 증권의 시장가격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발행가액을 각 증권에 배분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각 증권을 분리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발행가액을 분리하지 않는 방법은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과 유사하다. 즉,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내용도 다르고 법적 형태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신주인수권을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회계처리방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Ⅱ에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이론적 회계처리방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Ⅲ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회계처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Ⅳ에 서술한다.

Ⅱ. 분리형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 같이 일반사채보다 발행가액이 높으므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존재한다. 즉,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한다. 즉,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현재가치를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으로 인식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현재가치는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액(상환할증금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자본부분의 가치를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인식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신주인수권조정 계정에 계상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후에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말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소유자는 사채를 계속 보유하면서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사실상 두 가지 종류의 증권(신주인수권과 사채)을 동시에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증권에 대하여 독립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면 발행시점의 발행가액을 사채의 가격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행가액을 각 증권의 상대적 공정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text{사채에 배분되는 금액} = \text{발행가액} \times \frac{\text{사채의 공정가액}}{\text{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 + \text{사채의 공정가액}}$$

$$\text{신주인수권에 배분되는 금액} = \text{발행가액} \times \frac{\text{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text{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 + \text{사채의 공정가액}}$$

이와 같은 방법은 주식의 일괄발행시에 적용되는 상대적 공정가액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발행시점에서 두 개의 증권 중 하나의 공정가액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고 있는 증권에 우선적으로 당해 증권의 공정가액만큼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증권에 배분한다. 이 방법은 주식 일괄발행시에 적용되는 증분법과 동일하다. 두 증권의 공정가액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별도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리형 신주인수권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위와 같이 발행가액을 신주인수권과 사채에 배분한 후에는 할인발행된 경우 발행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현금	× × ×	
신주인수권대가		× × ×
현금(일반사채의 현재가치)	× × ×	
신주인수권조정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신주인수권의 장부가액이 결정되면 그 이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이나 행사기간의 만료시점에서는 신주인수권이 독립적으로 발행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후에 신주인수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면 사채의 소유권도 동시에 포기하여야 하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투자자에 의해 원래 형태대로 보유

되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처럼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러한 경우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단지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역할만 한다. 그러므로 발행회사는 한 종류의 증권, 즉 사채만 발행된 것처럼 해석하여 발행가액 전액을 사채에만 배분한다. 그리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일종의 사채중도상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할인 발행한 시점에는 일반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현 금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사채는 보통주로 전환되며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의 전환과는 달리 투자자가 추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주인수권 행사시에 필요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현 금	×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보통주자본금	× × ×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 ×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원래의 형태인 사채로 남아 있으므로 분개할 필요가 없다.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환할증금 중 행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A)	×××
행사시점에서 A의 현재가치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액(B)	<u>×××</u>

* 한국회계연구원은 위의 B를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신주인수권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자비용은 사채의 장부가액에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만기상환액(액면가액과 상환할증금의 합계)과 일반사채의 현재가치과의 총차액을 생각한다. 그런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만기상환액과 일반사채의 현재가치와의 총차액을 신주인수권조정상각액과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분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기간의 총상각액을 당해기간의 신주인수권조정상각액과 할인(할증)발행차금상각액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시점에서의 신주인수권조정액과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과의 비율에 따라 특정기간의 총상각액을 당해기간의 신주인수권조정상각액과 사채할인(할증)액상각액으로 배분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으로 한다.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채상환할증금을 납입금액에 가산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할인발행된 경우에 각 시점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① 발행시점:

현금	×××
신주인수권대가	×××
현금(일반사채의 현재가치)	×××
신주인수권조정	×××
사채할인발행차금	×××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환할증금	×××

② 이자비용지급시점:

이자비용	× × ×	
현금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신주인수권조정		× × ×

③ 신주인수권행사시점:

신주인수권대가	× × ×	
주식발행초과금		× × ×
사채상환할증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 ×	
신주인수권조정		× × ×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신주인수권조정

현금	× × ×	
자본금		× × ×
주식발행초과금		× × ×

④ 상환시점: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사채상환할증금	× × ×	
현금		× × ×

예제 1. 할인발행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빈털털회사는 1차연도 1. 1.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928,283에 발행하였다.

총액면가액: 사채 1,000매 총 ₩1,000,000

표시이자율: 연 7%

일반사채의 수익률(유효이자율) : 연 16%

신주인수권사채 1매당 신주인수권 1매를 첨부

신주매입가격: 신주인수권 10매당 액면가액이 ₩5,000인 보통주 1주를 ₩7,000에
매입

신주매입기간: 사채발행 이후 1개월 경과일로부터 상환만기일 2일 전까지

상환일(만기일): 3차연도 12. 31.

이자지급방법: 매연도 말에 지급

상환방법: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사채는 액면가액의 116.87%를 일시상환
(보장수익률: 연 12%)

물음

1. 상환할증금과 신주인수권조정금액을 계산하라.
2. 1차연도 1. 1, 1차연도 12. 31, 2차연도 12. 31.에서 필요한 분개를 하라.
3. 3차연도 1. 2.에 총 800매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 필요한 분개를 하라.
4. 3차연도 12. 31.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해답

1.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가액 ₩1,000,000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현재가치(보장수익율: 연 15%)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1,000,000 \times 0.71178 = ₩711,780$

총이자비용의 현재가치 $₩1,000,000 \times 8\% \times 2.40183 = \underline{168,128} \quad (879,908)$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120,092

상환할증금: $₩120,092 \times (1 + 0.12) = ₩168,72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 ₩928,283

일반사채의 현재가치: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1,000,000 \times 0.64066 = ₩640,660$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168,721 \times 0.64066 = 108,093$

이자비용의 현재가치	₩ 70,000x2.24589 =	<u>157,212</u>	(905,965)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			₩22,318
상환할증금			<u>168,721</u>
신주인수권조정			<u>₩191,039</u>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액(₩1,168,721)과 현재가치(₩905,965)의 차액 ₩262,756을 다음과 같이 상각한다.

만기상환액과 현재가치의 총차이에 대한 상각표

연도	기초 장부가액	유효 이자율	총이자비용	현금 이자비용	할인액 총상각액	기말 장부가액
①	②	③	④=②×③	⑤	⑥=④-⑤	⑦=②+⑥
1차연도	₩905,965	16%	₩144,954	₩70,000	₩74,954	₩980,919
2차연도	980,919	16	156,947	70,000	86,947	1,067,866
3차연도	1,067,866	16	<u>170,855*</u>	<u>70,000</u>	<u>100,855*</u>	1,168,721
합계			<u>₩472,756</u>	<u>₩210,000</u>	<u>₩262,756</u>	
80%행사 후 상각표						
3차연도	₩951,506	16%	₩152,238	₩70,000	₩82,238	₩1,033,744

* 반올림오차

**상환할증금 중 행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A) ₩134,977

행사시점에서 A의 현재가치 (116,360)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 ₩18,617

신주인수권행사 직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장부가액 :

$$₩1,067,866 - ₩116,360 = ₩951,506$$

총차액 ₩262,756을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분해한다.

신주인수권조정 ₩191,039

할인발행차금

액 면 가 액 ₩1,000,000

발행가액	(928,283) 71,717
합계	<u>₩262,756</u>

할인발행차금 ₩71,717과 신주인수권조정금액 ₩191,039을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배분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률: ₩71,717 ÷ ₩262,756 = 27.294%

신주인수권조정 상각률: ₩191,039 ÷ ₩262,756 = 72.706%

연도	할인액 총상각액의 배분		
	할인액 총상각액	사채할인 발행차금상각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①	②	③ = ② × 27.294%	④ = ② × 72.706%
1차연도	₩74,954	₩20,458	₩54,496
2차연도	86,947	23,731	63,216
3차연도	<u>100,855</u>	<u>27,527*</u>	<u>73,327*</u>
합계	<u>₩262,756</u>	<u>₩71,717</u>	<u>₩191,039</u>

* 반올림오차

1차연도 1. 1. 발행시점:

현금	22,318	
신주인수권대가		22,318
현금(일반사채의 현재가치)	905,965	
신주인수권조정	191,039	
사채할인발행차금	71,717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상환할증금		168,721

1차연도 12. 31. 결산시점:

이자비용	144,954
------	---------

현금	7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0,458
신주인수권조정	54,496

자본:

신주인수권대가	₩22,318
2차연도 12. 31. 결산시점:	
이자비용	156,947
현금	7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3,731
신주인수권조정	63,216

3. 총 800매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으므로 80%가 전환된 것이다.

발행주식수: $800\text{매} \div 10\text{매} \times 1\text{주} = 80\text{주}$

보통주자본금: $80\text{주} \times \text{₩}5,000 = \text{₩}400,000$

상환할증금: $\text{₩}168,721 \times 80\% = \text{₩}134,977$

신주인수권대가: $\text{₩}22,318 \times 80\% = \text{₩}17,854$

신주인수권대가	17,854
주식발행초과금	17,854
사채상환할증금	134,977
주식발행초과금	134,977
주식발행초과금	18,617
신주인수권조정	18,617

*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현금	560,000
보통주자본금	400,000
주식발행초과금	160,000

4.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상환할증금	33,744
현 금	1,033,744

III.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비분리형에 대한 회계처리도 분리형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즉,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하고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되지 않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에서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하여 계산하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시가와 신주인수권의 시가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나와 관련된 것이지 개념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올바른 회계처리가 아니다.

한편, 「상법」에 의하면 비분리형인 경우에는 사채 자체를 보통주로 전환시키지 않고 신주인수권만 행사할 수가 있다. 즉,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회사에 제시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만 사채권에 기재되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행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형태로 유통된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에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상법」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관한 경제적 실질보다는 발행형식 및 거래방법이 강조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제 2. 분리형 및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론적방법과 「기업회계기준서」 방법

1차연도 1. 1.에 푸른숲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가액: ₩1,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1,000매를 액면발행하였다. 일반사채의 수익률(유효이자율)은 연 12%이다. 사채 1매당 1매의 신주인수권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인수권 10매당 액면 ₩5,000인 보통주 1주를 ₩5,800에 매입할 수 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직후의 사채 1매당 공정가액은 ₩960,926이며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은 1매당 ₩96,074이다. 1차연도 1. 2.에 신주인수권 800매가 행사되었으며, 나머지 200매는 권리행사기간 만료일까지 행사되지 않았다.

물음

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을 분개하라.
2. 1차연도 1. 2. 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분개하라.
3. 권리행사기간 만료일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4. 위에서 주어진 자료 중 발행시에 사채의 공정가액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물음 1~3에 답하라.
5.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비분리형이라고 가정하고 물음 1~3에 답하라.
6.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물음 1~3, 5에 답하라.

해답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5.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1. ㉠ 발행가액의 배분 :

사채에 배분되는 금액	$\text{₩}1,000,000 \times \underline{\text{₩}903,926}$	
	$\text{₩}903,926 + \text{₩}96,074 = \text{₩}903,926$	$\text{₩}1,000,000$
신주인수권에 배분되는 금액	$\text{₩}1,000,000 \times \underline{\text{₩}96,074}$	
	$\text{₩}903,926 + \text{₩}96,074 = \underline{96,074}$	<u>0</u>
합 계	<u><u>₩1,000,000</u></u>	<u><u>₩1,000,000</u></u>

사채 1매당 장부가액 $\text{₩}903,926 \div 1,000\text{매} = \text{₩}903,926$ ₩1,000

신주인수권 1매당 장부가액 ₩ 96,074 ÷ 1,000매 = ₩ 96.074 0

㉠ 발행시점:

현 금(일반사채의 현재가치)	903,926	현금	1,000,000
신주인수권조정	96,074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현 금	96,074		
신주인수권	96,074		

2. 행사시점:

신주인수권대가	76,859	현금	464,000
주식발행초과금	76,859	신주인수권부사채	800,000
* 800매 × ₩96.074 = ₩76,859			

현 금	464,000*		
자본금	400,000	자본금	400,000
주식발행초과금	64,000	주식발행초과금	864,000
* 80주 × ₩5,800 = ₩464,000			

3. 만료시점

신주인수권대가	31,050		
주식발행초과금	31,050	분개없음	

4. ㉡ 발행가액의 배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가액	₩931,508
신주인수권에 배분되는 금액	<u>(180,000)*</u>
사채에 배분되는 금액	<u>₩751,508</u>

사채 1매당 장부가액 ₩751,208 ÷ 1,000매 = ₩751.51
 신주인수권 1매당 장부가액 ₩180(공정가액)
 *₩180 × 1,000매 = ₩180,000

㉢ 발행시점:

현 금	180,000
신주인수권대가	180,000
현 금(일반사채의현재가치)	751,508
사채할인발행차금	248,491
사채	1,000,000

㉠ 신주인수권 행사시점:

신주인수권대가	144,000
주식발행초과금	144,000

* 800매 × ₩180 = ₩144,000

현 금	464,000
자본금	400,000
주식발행초과금	64,000

㉡ 신주인수권행사기간 만료시점:

신주인수권대가	36,000*
주식발행초과금	36,000

* 200매 × ₩180 = ₩36,000

6.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text{사채에 배분되는 금액} \quad ₩1,000,000 \times \frac{₩903,926}{₩903,926 + ₩96,074} = ₩903,926$$

$$\text{신주인수권에 배분되는 금액} \quad ₩1,000,000 \times \frac{₩96,074}{₩903,924 + ₩96,074} = 96,074$$

(신주인수권 대가)	₩903,924 + ₩96,074	_____
발행가액		<u>₩1,000,000</u>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 ₩1,000,000

일반사채의 현재가치(유효이자율: 연 12%)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1,000,000 \times 0.71178 = ₩711,780$

총이자비용의 현재가치 $₩80,000 \times 2.40183 = 192.146 \quad \underline{(903,926)}$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

₩ 96,07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점:

현 금	903,926	왼쪽과 동일
신주인수권조정	96,074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현 금	96,074	
신주인수권대가	96,074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시점:

신주인수권대가	76,859	왼쪽과 동일
신주인수권조정	76,859	
현 금	464,000	
자본금	400,000	
주식발행초과금	64,000	

신주인수권의 권리소멸시점:

신주인수권조정을 상각함		왼쪽과 동일
--------------	--	--------

IV.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과 개선책

예제 2에서 일반사채의 수익률(유효이자율)이 연 12%이므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1매당 공정가액이 ₩960.93이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거래되면 신주인수권 1매당 공정가액이 ₩96.07로 거래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분리형이면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비분리형이면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거래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증분법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할 때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이용하면 분리형으로 분류하고 증분법을 이용하면 비분리형

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서」의 회계처리 방법은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개념에 토대한 것이 아니므로 잘못되어있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Ⅱ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환할증금 중 행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A)	<u>×××</u>
행사시점에서 A의 현재가치	<u>(×××)</u>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액(B)	<u>×××</u>

*한국회계연구원은 위의 B를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신주인수권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예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해석은 잘못되어 있다.

한편,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면 행사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고 만기 상환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업이 청산되는 시점까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존속한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중도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기업이 청산되는 시점까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존속하는 것도 잘못된 회계처리방법이다.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화폐액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주인수권대가라 하면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신주인수권대가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중도에 현금으로 상환되거나 만기상환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대가 계정잔액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제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발행: 액면상환과 할증상환

1차연도 1. 1.에 무일푼회사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액면가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지급방법: 매연도 말에 후급, 상환일: 3차연도 12. 31.)를 액면발행하였는데, 3차연도 1. 2.에 사채액면 ₩800,000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

(액면가액: 주당 ₩5,000)를 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권 행사비용: 사채액면 ₩10,000당 보통주 1주

행사가격: ₩12,000

행사기간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만기일 30일 전까지

증서의 분리여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시점에서의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4%이다.

물음

1. 보장수익률이 연 14%라고 가정하고 상환할증금을 계산하고 신주인수권조정상 각표를 작성하라.

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원금상환방법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부분은 원금의 113.76%(보장수익률: 연 14%)로 상환하는 경우와 상환일에 액면가액만 상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1차연도 1. 1.부터 3차연도 12. 31.까지 필요한 분개를 하라.

해답

1.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가액 ₩1,000,000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현재가치(보장수익률 : 연 14%)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1,000,000 \times 0.67497 = ₩674,970$

이자비용의 현재가치 $₩100,000 \times 2.32163 = \underline{232,163} \quad (907,133)$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92,867

상환할증금: $₩92,867 \times (1 + 0.14)^3 = ₩137,584$ (반올림오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 ₩1,000,000

일반사채의 현재가치(유효이자율: 연 14%)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674,970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 92,867

이자비용의 현재가치	<u>232,163</u>	<u>(1,000,000)</u>
신주인수권대가(신주인수권의 가치)		₩0
사채상환할증금		<u>137,584</u>
신주인수권조정		<u>₩137,584</u>

신주인수권조정 상각표

연 도	기초부채	유 효 이자율	총이자비용	현 금 이자비용	신주인수권 조정	기말부채
①	②	③	④=②×③	⑤	⑥=④-⑤	⑧=②+⑥
1차연도	₩1,000,000	14%	₩140,000	₩100,000	₩40,000	₩1,040,000
2차연도	1,040,000	14	145,600	100,000	45,600	1,085,600
3차연도	1,085,600	14	<u>151,984</u>	<u>100,000</u>	<u>51,984</u>	1,137,584
합 계			<u>₩437,584</u>	<u>₩300,000</u>	<u>₩137,584</u>	

80% 신주인수권 행사후 상각표

3차연도	₩989,050*	14%	₩138,467	₩100,000	₩38,467	₩1,027,517
------	-----------	-----	----------	----------	---------	------------

* 상환할증금중 행사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A)	₩110,067
행사시점(3차연도 1. 2.)에서 A의 현재가치	<u>(96,550)</u>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조정	<u>₩13,517</u>

신주인수권행사 직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장부가액: ₩1,085,600 — ₩96,550
= ₩989,050

2.

상환할증조건이 아닌 경우

상환할증조건인 경우

1차연도 1. 1. 발행시점:

현금	1,000,000	현금	1,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1차연도 12. 31. 결산시점:

신주인수권조정	137,584
사채상환할증금	137,584

이자비용	100,000	이자비용	140,000
현금	100,000	현금	100,000
		신주인수권조정	40,000
2차연도 12. 31. 결산시점:			
이자비용	100,000	이자비용	145,600
현금	100,000	현금	100,000
		신주인수권조정	45,600
3차연도 1. 2. 신주인수권 행사시점:			
		사채상환할증금	110,067 *
		주식발행초과금	110,067
		* ₩137,584 × 80% = ₩110,067	
		주식발행초과금	13,517
		신주인수권조정	13,517 *
		*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미상각 신주인수권조정	
현금	960,000*	현금	960,000
자본금	400,000		
주식발행초과금	560,000	자본금	400,000
* ₩800,000 ÷ ₩10,000 = 80주		주식발행초과금	560,000
80주 × ₩12,000 = ₩960,000			
3차연도 12. 31. 이자비용지급시점:			
이자비용	100,000	이자비용	138,467
현금	100,000	현금	100,000
		신주인수권조정	38,467
3차연도 12. 31. 만기상환시점: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000
현금	1,000,000	사채상환할증금	27,517
		현금	1,027,517*
		* ₩1,000,000 + ₩137,584 × 20% = ₩1,027,517	

V. 결 론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었을 때 최초의 발행가액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 두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발행가액을 사채의 시가와 신주인수권의 시가와 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행가액 전액을 사채에 배분하고 신주인수권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주인수권을 분리형 신주인수권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분리형과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두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동일하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시가와 신주인수권 시가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대가는 일반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하여 그 차액으로 신주인수권을 평가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서」는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할 때 상대적 공정가액법을 이용하면 분리형으로 분류하고 증분법을 이용하면 비분리형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용 정보에 따른 분류이지 개념의 차이에 바탕을 둔 분류가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고 만기 상환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업이 청산되는 시점까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존속한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중도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기업이 청산되는 시점까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존속하는 것도 잘못된 회계처리방법이다.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화폐액으로 측정된 것을 신주인수권대가라 하면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신주인수권대가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중도에 현금으로 상환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대가 계정잔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한국회계연구원 (2002).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Accounting Principles Board. (1969). "APB Opinion No. 14, Accounting for Convertible Debt and Debt Issued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Accounting for Convertible Bonds with Stock Warrants

Song Ki Kim*

ABSTRACT

When bonds with detachable stock warrants are issued, these warrants represent right that enable the security holders to acquire a specified number of common shares at a given price within a certain time period.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allocation of value to the stock warrants is 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treatment for convertible debts. It may be argued that to deny recognition value to the conversion feature merely looks to the form of the instrument and does not deal with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A portion of the proceeds of bonds issued with detachable warrants be allocated to the stock warrants and accounted for as additional paid-in capital. This allocation is based on the relative fair values of the bonds and warrants as soon as both elements trade separately on the open market. The issuance of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s involves two securities, one a debt security, which will remain outstanding until maturity, and the other a warrant to purchase common stock. At the time of issuance, separable instrument exist, and therefore separate treatment is justified. Nondetachable warrants, however, do not require an allocation of the proceeds between the bonds and the warrants. The entire proceeds are recorded as debt. However, the accounting treatment for detachable bonds and for nondetachable bonds in Korea appears the same, which may be incorrect. This paper suggests an appropriate treatment for bonds with warrants.

Key Words: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s, bonds with nondetachable warrants, allocation of proceeds, relative fair market value method, incremental method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